



문화선교 단체 러빙워십 스텝들. © Lovingworship

신앙과 문화를 잇다, 찬양 콘서트 ‘익투스’, 연극 ‘사랑해 엄마’ 개최

초대교회 신앙의 표식 ‘익투스 (IXOYΣ)’ 주제, 조혜련 집사 브라이언 김 초청 찬양 콘서트

오는 10월, 개그우먼 조혜련 씨와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김이 남가주를 찾는다.

이들은 10월 4일(토) 재생명비전교회, 5일(주일) 감사한인교회, 10일(금)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콘서트 <익투스>(IXOYΣ)의

메인 게스트로 무대에 서, 신앙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한다.

이어 12일(주일)과 13일(월)에는 다우니 극장에서 조혜련 씨가 연출·출연하는 연극 <사랑해 엄마>가 무대에 오른다. 조혜련(엄마)을 비롯해 정지환(아들), 조지환(아빠), 유민정, 엄대, 이서주, 김연수 등이 출연한다.

러빙워십은 2022년 LA 제이어스와 연합 콘서트 <예수아>를 시작으로, 비와이 콘서트와 CBS <새롭게 하소서> 팀과의 찬양 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의 동력은 ‘문화선교’에 있다고 말했다.

러빙워십의 김낙영 간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문화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디한기자→2면에서 계속

美 목회자들 “제자훈련 중요하나 측정·체계 부족”

미국 내 다수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거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발표한 ‘제자훈련 현황(State of Discipleship)’ 보고서는 응답한 목회자의 52%가 교회의 제자훈련과 영적 성숙 과정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71%의 목회자가 “제자훈련은 측정 가능하다”고 인식했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30%에 그쳤다. 이중 “확실히 정의된 체계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미경 기자 →3면에서 계속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 기독일보

도전적인 상황 속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8월 28일(목), 애너하임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일일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EU 미성대학교와 MiCA(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 미주복음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선교적 목회에 참여 중인 40여명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추가 신청자가 몰려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한인 교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동부사랑교회 우영화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막을 올렸다.

그는 “올해의 목표는 신학교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셔널 처치라는 의미 있는 주제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하다. 미주 CGN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인 강의를 이상훈 총장(미성대학교, MiCA 대표)이 맡았다. 그는 신간 <Re_Vive Church: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열 개 장을 두 시간 동안 요약하며, “선교적 교회란 결국 교회의 본질을 향한 끊임없는 고민과 몸부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며, 일상의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개인과 소그룹 공동체가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했다.

Ministry Insight 세션에서는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과

통찰을 나누었다.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는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선교적 목회자는 시대를 읽고 교회를 통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는 17년간의 제자훈련 사역을 돌아보며, “선교적 교회에서 제자도는 엔진과 같다”는 책의 통찰에 깊이 공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는 팬데믹 이후 한인 사회의 도전적인 상황에서 의료와 봉사 등 도시선교의 실제 사례를 나누며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회 내 소그룹이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닌, 지역 사회와 이웃을 향한 선교적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미나는 교회와 성도 개인의 선교적 DNA를 새롭게 일깨우고, 단순한 이론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회와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참가자는 “세미나가 교회 현장을 꿰뚫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큰 도전과 동시에 숙제를 안겨주었다”며, “이론을 넘어 삶과 목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모임은 미주 한인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길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되었다. 김민선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을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월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애플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원)제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2025 사모 블레싱 나이트 “그만둘 수도, 멈출 수도 없다”

9월 7일(주일) 오후 5시 베델교회 체육관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단체 공동 주관

목회자의 곁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 가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특별한 자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마련된다.

‘2025 사모 블레싱 나이트’가 9월 7일(주일) 오후 5시, 어바인 베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앞서 7월 28일부터 8월 20까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진행된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와 8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으며, 주최측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체 행사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베델교회는 체육관을 개방해 200여 명의 사모들을 초청, 식사와 함께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모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연진으로는 목사모 합창단과 CTS 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서며, 풍성한 말씀과 찬양, 선물 나눔이 준비된다.

최국현牧사는 “사모님들은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과 목회를 동시에 섬기느라 지쳐 있다”며,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 주일학교 사역,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중간 역할, 재정 담당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지만 자신은 정작 위로 받을 길이 없다”며, “일단 사모님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 좋은 말씀과 교제, 풍성한 선물을 통해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진용 목사는 “사모 블레싱은 단순히 보는 행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며,

“그만둘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윤우경 권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처음에는 원로 사모님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지금은 30·40대는 물론 20대 사모님들까지 세대가 넓어졌다”며, “사모들의 세대별 공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행사는 선착순 200명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문의는 714-909-0933으로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글로벌힐링아트페라피가 협력한다.

이윤준 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 1면 기사 <신앙과 문화를 잇다...>에 이어서

“조셉 리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문화선교’를 사역의 키워드로 받으셨다. 최근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송정명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문화’가 이 시대의 키라고 하셨다. 최고 수준의 무대와 음향, 조명을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이 영성을 일깨우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도 이문세 공연 등의 총괄 디렉터를 맡은 에릭 한 감독과 라라랜드 월드투어 음향을 담당했던 트로이 최 감독이 참여한다.



조혜련 집사, 브라이언 김이 함께하는 찬양콘서트<익투스>와 연극 <사랑해 엄마>를 준비 중인 러빙워십 간사들과 팀장들. ©러빙워십

이번 공연의 기획 배경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의 그리스어 머리글자에서 유래한 단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표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들은 이번 주제 ‘익투스’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며, “세대와 환경을 초월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메인 게스트 조혜련 씨는 CGN 방송, 간증 집회, 성경 통독 사역 등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며 있다. 브라이언 김은 일본, 미얀마, 중국,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

아 등 전 세계를 다니며 6천 회 이상 콘서트를 통해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러빙워십은 이번 행사가 “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콘서트는 10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10월 5일(주일) 오후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10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리며 티켓은 \$10이다. 구입 문의는 213-357-1565, 562-766-9494로 하면 된다.

조혜련 집사가 간증집회를 이끌며, 브라이언 김 선교사와 러빙워십의 찬양팀이 찬양하고, 조셉 리 목사,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가 각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2025 춘천연극제 대상 수상 연극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는 남편을 여의고 생선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엄마의 삶을 그린다. 아들의 유치원 시절부터 결혼을 앞두고 까지 여정을 따라가며, 어머니의 희생과 가족의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소소한 일상속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을 웃고 울게 하며, 가슴 저미는 감동을 선사한다. 기독교적 색채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가족 간의 갈등,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서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복음적 메시지가 스며 있다.

러빙워십은 이번 연합 공연이 남가주 교회들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문화와 영성이 분리되지 않고, 웃음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들은 “지금 교회마다 청년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콘서트 때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많은 청년들이 몰려 오는 모습 속에서, 큰 힘을 얻고, 문화사역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소망을 전했다.

러빙워십은 비와이 콘서트 준비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와 단체들을 쉬지 않고 찾아다니며 취지를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순간을 열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밖에는 없는 러빙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러빙워십은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러빙이 가지는 가장 큰 파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나의 구세주.’ 그것이 러빙워십의 정체성이다.”

찬양 콘서트<익투스>

▶10/4 (토) 6:30 새생명비전교회
▶10/5 (주일) 7:30 감사한인교회
▶10/10 (금) 7:30 나성영락교회
티켓(\$10) 문의: 213-357-1565
562-766-9494 (text)

연극 <사랑해 엄마> 다우니 극장

▶10/12 (주일) 7:00
▶10/13 (월) 2:30, 7:30
▶티켓(\$60)문의: 213-357-1565
562-766-9494 (text)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인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발달 장애 컨퍼런스
10월 17일-18일 충현선교교회서
〈예수와 장애〉 저자의 특별 강연

2025년 한인교회 발달 장애 컨퍼런스가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주최로 오는 10월 17일-18일(금-토) 충현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인 교회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는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이를 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열린다.

『예수와 장애』의 저자이자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 장애인 사역 디렉터인 크리스 H. 헐쇼프 박사가 주 강사로 참여해 〈예수님의 포용적인 리더십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장애인을 위한 조이 센터(the Joy Center for the Disabled)의

대표이사 H. 다니엘 김 목사와 리디아 김 박사(뉴욕 퀸즈한인교회)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가 전하는 포용적인 교회 사역 이야기〉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의 장애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케시 맥네어(트리니티 교회)가 〈장애를 겪는 성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박현주 목사(나성영락교회 YES 센터,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백진숙 대표 (Being Built Together)가 〈형제 자매의 목소리: 경청하고 공감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에스티 송 교수(Prof. Estée Song, TBRI Trust-Based Relational Intervention 전문가)가 〈발달장애 친화적 교회 운동〉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교회 목회자 및 장애부서 사역자, 장애인 가족, 신학생,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 대학/대학원생,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



상으로 하며, 장애인 부모 선착순 100명에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으로 참가비를 무료 지원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0이며, 신학생은 20% 할인, 세 번째 참가자

부터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세션은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김민선 기자 문의 및 등록 충현선교교회 818-549-9191

GBC, 2025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2025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오는 10월 3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공개헌금의 날’은 상업광고 없이 전적으로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GBC가 한 해 동안의 방송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40만 달러이며, 모금액은 △방송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 △노후 송출 장비 교체 △종합미디어로의 도약을 위한 시설·인력 투자 △방송국 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2025년 주제는 ‘당신이 있어 아름다운 길’이며 GBC가 직접 제작한 주제곡 ‘아름다운 동행의 길’도 이번 캠페인에서 처음 공개된다.

사진 이벤트와 특별 프로그램

GBC에서는 공개헌금의 날을 앞

두고 8월 한 달간 ‘함께 걷는 아름다운 길’ 사진·사연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9월부터는 ‘아름다운 가게’ 할인쿠폰 이벤트가 시작된다. GBC 동역 업체와 후원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 쿠폰은 ‘공개헌금의 날’ 특집호 뉴스레터’에 실리게 되며, 청취자들은 해당 쿠폰을 올려 참여 업체에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부스와 시간대별 특별 이벤트

올해 ‘공개헌금의 날’에는 GBC Anaheim 본사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 12곳에 부스가 설치된다. 방문 후원자에게는 매년 증명하는 GBC 특별 제작 에코백과 새해 달력, 각 부스별 특별 선물이 제공되며 이벤



트가 진행된다.

GBC 이영선 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올해도 동역자들이 ‘아름

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방송 및 참여 안내

‘2025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은 10월 3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AM1190 라디오와 GBC 유튜브 채널, APP 등을 통해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동역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 기관의 대표들이 출연하여 GBC의 사역과 비전을 나누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선교헌금을 받는다. 현장 부스에서도 후원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부스 : GBC Anaheim 본사, LA미주성서화운동본부, 김스전기,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살롱교회, La Palma 한남체인, Buena Park H-Mart, Buena Park 한남체인, Fullerton 아리랑마켓, Diamond Bar 한남체인, Garden Grove 아리랑마켓, Irvine 시온마켓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건강하게
ALWAYS HEALTHY
새롭게



→ 1면 기사 〈美 개신교 목회자들 제자훈련 ...〉에 이어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의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나, 그 구조는 다양했다. 응답자의 50%는 각 부서(청년부·여성부·남성부 등)가 자체 전략을 세운다고 답했으며, 45%는 교회 전체가 통합된 계획을 따른다고 밝혔다.

제자훈련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46%가 성경 지식을 꼽았고, 38%는 관계와 격려, 9%는 실질적 훈련(How-to 활동), 5%는 체험과 봉사라고 답했다.

제자훈련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도구는 주일 설교(89%)였으며, 이어 주일학교(69%),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성 모임(57%), 목회자 주도 강의(54%), 남성 모임(45%), 전체 성인 대상 학습 모임(42%), 멘토링(31%), 책임 모임(14%)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자훈련의 핵심 요소에 대한 정의도 다양했다. 목회자들의 답변에는 영적 성장·훈련(12%), 성경 공부·암송(10%), 멘토링·1:1 만남(7%), 가르침·훈련(6%), 기도(6%), 제자 삼기(5%) 등이 포함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소장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교회가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체계적 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무료 안과 검진 아이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서부지회는 9월13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아이캠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이 있지만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에게 무료 시력 및 안과

검사를 제공하며 연령대 상관없이 무료 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전케어는 검진 결과에 따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만 7~18세에게 무료 아동용 안경 등

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LA 총영사관과 코리안 아메리칸 재단, 강드림재단, AIcon,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오픈뱅크, 기빙 트리 렌딩, LA라이온스 클럽 등이 후원한다. 조셉 리 기자 예약 전화: 213-563-9307

2025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모집기간 12월 5일(금)까지
밀알·꿈나무·근로복지장학생

남가주 밀알선교회(단장 이종희 목사)가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 밀알장학생(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이며,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각 장학금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밀알장학생



2025년도 밀알 장학금 수여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

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장학금액은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은 1인당 \$3,600 (매달 \$300 지급), 꿈나무장학금은 1인당 \$1,000 (일시 지급)이다.

마감은 2025년 12월 5일(금)자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다. Email 접수도 가능하다.

발표는 12월 30일(화) 개별통보하며, 수여식은 1월 19일(월)에 열린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장학금 \$3,146,600이 수여됐다.

신청 및 문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전화: 562-229-0001
이메일: admin@milalsca.org
웹사이트: www.milalsca.org

10/3, 5(금, 주일) 배우 '오윤아' 초청 밀알의 밤

한편, 밀알선교회는 10월 3일(금) 7시 30분 ANC 온누리교회, 5일(주일) 6시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돌보심'이란 주제로, 배우이자 자폐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로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오윤아' 집사 초청 말알의 밤을 개최한다.

티켓(\$20) 구입: hotdeal.koreadaily.com

미 전역 한인, 워싱턴 D.C. 집결 ‘미주 한인 포럼 2025’

9월 19~20일, 자유·민주·법치 수호 위한 전략회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미주 청년 연합 주최로 마련된 ‘미주 한인 포럼 2025’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Dulles 국제공항 인근 호텔에서 진행되며, 미국 50개 주한인 사회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00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교포들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보냈고,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서는 조국의 자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힘이 한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한국은 다시 한 번 자유민주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 법치보다 포퓰리즘을, 자유보다 의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중국 의존과 권위주의로 기울게 할 위험이 있다. 이 위

English Interpretation Available

2025. 9.19-20

여기서 REGISTER

FOR INQUIRIES

미주 한인 포럼

WASHINGTON D.C.

주최 미주 청년 연합

연사

SPEAKERS

황교안 대표

이회천 교수

전한길 대표

박주현 변호사

[그라운드] 김성원 대표

기 속에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려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해의 한인의 목소리는 단순한 ‘고향 걱정’이 아니다. 이는 곧 우리 후손의 정체성과 권리, 그리고 한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전략을 세우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 △자유·민주·법치 수호 전략 △한미동맹의 미래 △세대·지역을

미동맹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한국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전 세계 한인 사회에 미친다. 반대로 우리가 연대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한미자유 동맹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떼떽하게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

위기의 시대,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회의
이번 포럼은 단순한 강연회가 아닌 이회천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 가치, 그리고 해의 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국제정치와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이회천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 가치, 그리고 해의 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에서 ‘한국사 끝판왕’으로 불리며 독보적 입지를 굳힌 전한길 선생은, 강단을 넘어 국민 주권 회복 운동의 상징으로서 대중 동원력과 데이터 기반 설득, 상징적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률 실무를 두루 경험한 박주현 변호사는 법치주의 회복과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국제 연대 방안을 설명하며, 제도적 대안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와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활약해 온 그라운드 C 대표는 해외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미래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공유한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주 한인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속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미주 한인 포럼 2025
일시: 9월 19일(금)~20일(토)
장소: 워싱턴 덜러스 공항 힐튼 호텔 (13869 Park Center Road Herndon, VA 20171 USA)
참가 대상: 자유·민주·법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미주 한인 및 지지자
등록: <https://bit.ly/3HfEJAW>
후원/기부: <https://bit.ly/4oxCF8z>
문의: koreafreedom2025@gmail.com / 571-447-2410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 대회

더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참가대상

만 64+
시니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지금 바로 예약 신청하세요!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NOV 3 월요일
오전 10시 샷건

문의 (888) 847 - 3098
연락 월 - 금 / 9 AM - 5 PM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의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 미래 있는 영적 부흥의 마중물” 2025 시애틀 선교 컨퍼런스 성료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5 시애틀 선교 컨퍼런스가 지난 8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역사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부흥의 복음통일로”라는 주제로 미국 워싱턴주 웨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이민규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교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돌아보는 교회 역사에 대한 강의부터 현실적인 신앙과 선교적 삶, 재정 관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복음 통일의 비전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탈북자 사역자와 통일 전문가, 다음세대 사역자들의 강의와 간증을 통해 복음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 방법에 대해서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차세대 사역자들과 젊은이들이 참여해 북한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1세와 2세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마련된 점이 돋보였다. 더불어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의 역사와 분단의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교대회에서 강의는 △역사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부흥의 복음통일을 주제로 이어졌다. “역사적교회”를 강의한 신승철 선교

사(브링엄 인터네셔널 대표)는 초대교회 후 가톨릭의 급성장(중세) 가운데 교회의 형성 과정과 종교개혁 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교회의 태동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면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30년 넘게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한 론돈희 선교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선교」란 제목으로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 강의하며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성도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일깨웠다. 또 신윤수 교수(로올라대학)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축과 투자, 투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물자산 △금융자산 △암호화폐 등 자산 간의 차이를 설명하며 신앙과 재정의 조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현 박사는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 교육의 허실을 짚고, 창조론을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강의를 전했다. 이충현 박사는 공교육에 스며든 진화론과 유토피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창조론은 교리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



“역사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부흥의 복음통일로”라는 주제로 웨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된 2025 시애틀 선교 컨퍼런스

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낼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부흥의 복음통일”을 주제로 강의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2012년 탈북한 지하교회 출신 탈북 목회자인 연모세 박사는 북한 실상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연모세 박사는 북한 지하교회의 고난과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증언하며 “북한 복음화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임을 강조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미주 북한청년 리더 총회장 이현승 대표는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을 거치며 직접 경험한 종교의 중요성과 자유

가 가진 소중함을 증언해 큰 공감을 얻었다. 현재 미국에서 북한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는 이현승 대표는 “향후 북한이 개방될 경우, 기독교는 단순한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은 민족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선택 강의에서는 가정 예배 회복, 문서 선교, 문화 선교, 다큐 영화 사역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윤학렬 감독은 다큐 The Revival의 제작기를 나누며, 복음 통일이 부흥의 절정으로 이어지는 영적 통찰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제임스 진 선교사는 “AI 시대의 선교 전략”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복음통일의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했고, 문인철

목사는 “복음통일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복음 통일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 전략을 소개했다. 기독교 대안학교 벨국제아카데미 이사장 이흥남 목사의 「5차원 영성으로 시니어 선교를 시작하라」란 제목으로 시니어 세대의 선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대회장 박상원목사(기드온동족 선교회)는 “평양은 회개로 1907년 대부흥을 만났고, 최근 2023년 에즈베리는 오랜 기도로 준비한 중에 1970년대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재현됐다”며 “부흥은 회개를 통해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오랜 사모함과 준비 끝에 오는 열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복음통일’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디아스포라들의 땅인 미국 혹은 다른 해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원 목사는 “강의와 간증,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가운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있는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준 기자

딸이 학교 탈의실에서 나체 성범죄자와 마주쳐... 엄마의 반응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9세 딸이 학교 탈의실에서 나체의 남성 성범죄자와 마주한 사건을 겪은 한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젠 맥두걸은 지난 목요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9세였던 딸과 함께 알링턴의 워싱턴 리버티 고등학교 수영강습에 등록했다가 사건 발생 이후 등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맥두걸은 “지난해 9월, 딸과 제가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규정한 생물학적 남성이자 등록된 성범죄자가 완전히 나체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최소 12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 사건 이후 맥두걸은 여러 여성들이 리처드 콕스에 대해 이미 불만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콕스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해당 교육구의 탈의실 및 화장실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맥두걸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을 존중하며, 우리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변명은 그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부지사와 정치권 반응
버지니아주 부지사이자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며 해당 정책

을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얼-시어스의 발언은 알링턴 교육구가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근 결정 이후 나왔다. 그는 “진실은 단순하다. 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운동팀, 탈의실, 화장실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상식의 문제다. 그러나 알링턴에서는 소녀들이 사생활을 잃고, 소년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으며, 학부모들이 질문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는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교육부는 8월 19일 알링턴을 포함

한 북부 버지니아 일부 교육구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구가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학생들이 친밀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민권법 타이틀 IX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와 지지자들의 입장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 의장 베서니 제커 서튼은 공개 발언에 앞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차별 없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현행 트랜스젠더 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1월 5일 교육위원회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 제임스 리브스는 정신의학 배경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을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

는 “포용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남성이 여학생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는 지나친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학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시위와 논란
회의가 열리는 동안 알링턴 민주당 위원회가 조직한 시위대가 밖에서 얼-시어스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다고 WJLA가 보도했다.
한 여성 시위자는 “트랜스가 당신의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흑인은 내 식수대를 쓸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고, 이는 온라인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해당 피켓은 얼-시어스의 민주당 주지사 경쟁자인 전 연방 하원의원 애비게일 스펜버거 의원조차 비난했다.
홍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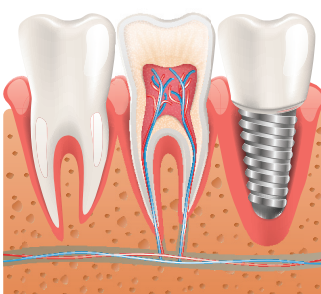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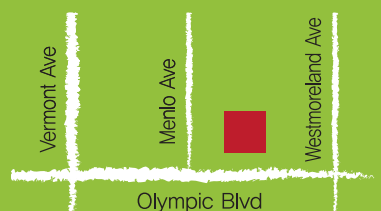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건국전쟁2〉, 붉게 물든 역사 왜곡 바로잡는 계기 되길

김덕영 감독, 2일 용산 CGV서 열린 시사회서 사회 밝혀

해방 전후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좌익 공산 세력 척결 노력을 다룬 〈건국전쟁2〉가 오는 10일 개봉한다. 영화는 제주 4·3 사건 등 정부의 좌익 척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와 진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번 포스터에는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의 발단이 된 남조선로동당(남로당) 무장 봉기를 제압하기 위해 파견된 박진경 대령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영화에 따르면,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 발생 직후 제주 제11연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아 제주로 간 스물여덟 살의 청년 장교 박진경 대령은 부임 43일 만에 남로당 프락치였던 손선호 하사 등 8명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제주 4·3 학살범으로 악마화됐다고 한다. 즉, 박진경 대령이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양민 30만 명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 왜곡이라는 것.

이를 뒷받침하고자 당시 제11연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채명신 장군(후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 사령관)의 증언도 나온다. 채장군은 박 대령에 대해 “군인 100명을 잃을지언정 양민 1명은 반드시 보



시사회 모습. 맨 중앙은 건국전쟁2 김덕영 감독.

호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신 분”이라며 “그분을 본받아 나도 베트남전 당시 양민 보호에 앞장섰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차원에서 발간된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것이다.

영화는 진실 규명을 위해 단순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사료와 통계를 근거로 삼는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측 자료를 토대로 박진경 대령의 제주 재임 기간(43일) 발생한 희생자는 200여 명인데 반해, 그 이후 발생한 희생자는 전체 희생

자(14,822명)의 86%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박 대령이 제주 4.3사건 학살자라는 주장에 반박한다. 그럼에도 박 대령 사후 그의 아내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결국 숨을 거뒀다는 유족의 증언이 등장하며 “왜곡된 역사 기술이 한 가정을 낙인찍어 송두리째 파탄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제작진은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 북한 남로당 측 문서에서 제주 4·3 주동자 김달삼이 제주 주민 5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해 양민과 군경을 학살하고 혼란을 조성해 5·10

총선거를 방해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힌다.

특히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발언했음에도, 그간의 역사 서술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치우쳐 왔음을 지적한다. 남로당 폭도들에게 어머니가 죽창에 찔려 희생당했다고 고백하는 전 제주도 교육감 김태혁 씨 등 제주 4·3유족 증언도 담겼다.

김덕영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그간 역사는 1948년 5·10 총선거를

전후한 좌익 폭동의 역사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고,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도 군경의 민간인 학살만 강조해 왜곡된 역사가 판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진경 대령을 학살자로 규정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인데, 좌파 진영에서는 증거 없이 선동만 일삼아 왔다”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짓 세력에 의해 붉게 물들었던 만큼, 이번 영화가 그 왜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화의 말미엔 한국전쟁 중 북한 공산군에 의해 학살당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시대 교회의 세계관 전쟁이 정치적인 게 아닌 영적 전쟁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주 4·3 당시 군경을 설득해 수천 명의 양민을 자수시키고 학살 현장에서 구출한 조남수 목사 등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덕영 감독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영화가 그 진실을 알리고 기록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故 옥한흠 목사님 믿음의 유산 세 가지는…”

故 은보 옥한흠 목사 15주기 기념예배 및 제10회 은보혜강상 시상식이 2일 서울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먼저 이권희 목사(신일교회)가 사회를 본 1부 기념예배에선 오주환 목사(예안교회)가 기도했고, 포에버찬양대의 ‘아름다운 강’ 찬양과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의 성경봉독이 있는 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 은보기념사업회 이사장)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롬 1: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목사는 “옥한흠 목사님은 우리에게 깊은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또 사랑의교회, 무엇보다 제자훈련에 대한 사명을 물려주셨다. 복음의 은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제자에 대한 헌신 이 세 가지가 옥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이라며 “우리가 이 유산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옥 목사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무엇이 복음인가. 모



故 옥한흠 목사 15주기 기념예배가 2일 서울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지만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능력은 파편적이지 않고 통전적이다. 복음의 이 깊은 신비와 능력이 다시 불타오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옥 목사님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셨다.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목사님께서 사

랑하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가 옥 목사님이 사랑하셨던 이 교회, 한국교회를 눈물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시대,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목사는 “끝으로 제자에 대한 헌신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수많은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가 온전한 제자가 되

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믿음이 제자훈련을 통해 잘 계승돼야 한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낳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옥한흠 목사님 15주기를 맞아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 복음의 은혜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제자에 대한 헌신이 잘 조화되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예배 참석자들의 합심기도가 있은 후 사랑브라더스가 ‘우리 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특송을 했고,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담임, 칼넷 이사장)가 추도사를 전했다. 오목사는 “옥한흠 목사님의 교회론과 사역을 사랑의교회가 계승하고 제자훈련의 센터가 된 것에 감사한다”며 “옥한흠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목회적 유산과 제자훈련의 철학을 계승하도록 하겠

다”고 전했다.

기념예배는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칼넷 고문)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후 2부 은보혜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은보(恩步)기념사업회는故 옥한흠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그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 및 선교지에 이 사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대흥교회(담임 정명철 목사)가 수상했다. 이교회는 지난 40년간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한다. 상에 대한 경과보고는 박주성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가 맡았다.

대흥교회 담임 정명철목사는 “제자훈련의 정신을 흠모하고 본받으려고 힘써 왔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다. 이제는 다음세대로 제자훈련 사역을 계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제자삼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튀르키예 기독교 공동체, 증오범죄·차별에 지속적 노출



©Imad Alassiry/ Unsplash.com

튀르키예 내 기독교 공동체가 최근 몇 년간 증오범죄와 제도적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튀르키예 개신교회협회(Turkey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 이하 ATPC)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를 인용해 “튀르키예 내에서 교회에 대한 물리적 공격, 외국인 사역자 추방, 온라인상 혐오 발언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스탄불 체크메코이에 위치한 구세주교회협회 건물은 차량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손상됐으며, 교회 표지판이 제거되는 시도도 있었다. 안탈리아 성경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에 터키인을 초대하는 것이 금지됐고, 디딤 라이트교회는 홍보책자 배포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튀르키예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아 입국 금지와 추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약 70명의 외국인 목회자와 그 가족이 추방됐으며, 일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상의 모욕적 발언과 협박도 증가했다. 이에 일부 교회는 온라인 계정 운영

을 중단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말라티아의 한 영어 교사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도 보고됐다. 기독교 인구는 20세기 초 전체 인구의 20%에서 현재 0.2%로 급감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TPC는 “우리는 공식적인 교회 소셜 미디어 계정, 교회 지도자, 기독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고 욕설이 가득한 발언을 접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종종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가 조장되며, 기독교 웹사이트와 계정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추방되거나 튀르키예 입국이 거부되고, 거주 허가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종교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종교 자유권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개신교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을 권고했다. 강혜진 기자

소말리아서 기독교인 여성과 아기 감금... 강제 회교 전환 압박



한 소말리아 여성이 기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소말리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이 영아와 함께 가족에 의해 감금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제 인권 소식통에 따르면, 28세의 파투마 하산(Fatuma Hassan)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로어 셰벨리(Lower Shebelle) 지역 아프구이(Afgooye) 마을의 친정집 방안에 갇혀 있으며, 음식과 자유를 제한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 하산은 전화 통화에서 “내 아기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해 아주 많이 아위었다”며 “가족은 내 아이를 ‘불신자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라 부르며 아이를 버리라고 강요한다. 나는 매일 아기를 위해 울며, 언젠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찾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CDI는 하산이 소말리아 내 왕족 가문 출신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 가족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친척들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햇빛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며 “하나님께서 개입해 남편과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CDI는 하산의 신앙은 모바일로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을 통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숙이 평화가 찾아왔다”며 “어느 날

꿈에서 ‘내가 목마른 것을 안다. 와서 내 물을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때부터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CDI는 하산의 가족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핸드폰을 빼앗고 방에 가두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행동에 지친 하산은 지난 2024년 3월 탈출한 중부 셰벨리(Middle Shabelle) 지역 발라드(Balad) 마을로 도망쳐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1년 넘게 가족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냈지만, 지난 6월 위치가 노출됐고 7월 말 시장에서 친척에게 발각되면서 다시 위협에 처하게 됐다. 지난 6일, 친척 6명이 그녀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하산의 남편은 급히 창문으로 탈출했다. 이후 하산은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강제로 끌려갔고, 현재 어두운 방안에 갇힌 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소말리아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2위를 기록했다. 소말리아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다른 종교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종자에 대한 사형을 허용한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AI Shabaab) 역시 이러한 율법 해석을 따르고 있어 개종자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8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9-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새벽예배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 6:30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토요일예배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일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승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경한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름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고등부)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파푸아뉴기니, ‘국가 회개의 날’
맞아 기도와 예배

지난 26일 열린 ‘국가 회개의 날(National Repentance Day)’ 행사에서 침식자들이 모여 찬양하고 있다. ©YouTube Screenshot / PNG Sunset Media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푸아뉴기니가 매년 기념하는 ‘국가 회개의 날(National Repentance Day)’을 맞아 지난 8월 26일(이하 현지 시각) 전국 곳곳에서 기도회와 예배가 열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CDI는 수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에서 새벽부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시르 존 가이스 스타디움에 모여 기도와 찬양, 설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의 주제는 “회개하고, 화해하며, 파푸아뉴기니를 새롭게(Repent, Reconcile and Reset Papua New Guinea)”였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색상으로 맞춘 복장을 입고 행사를 기념했으며,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나이지리아의 유명 복음성가 가수 시나치(Sinach)가 초청돼 찬양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초청은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CDI는 ‘국가 회개의 날’이 2007년 처음 제정되어, 국민이 나라의 기독교 유산을 돌아보고 신앙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만 파푸아뉴기니 복음루터교회(ELC-PNG)의 잭 우라메(Jack Urame) 수석 주교는 이 날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년간 이 날을 기념해왔지만, 그 의미가 나라 전체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라메 주교는 폭력, 부패, 약물과 알코올 남용, 부족 간 갈등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들을 언급하며 “회개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청렴을 회복하고 공적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lliance)과 파푸아뉴기니 교회협의회(PNG Council of Churches) 등 여러 교단의 지도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Body of Christ Church)의 조셉 월터스(Joseph Walters) 의장은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가 일상에서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승연 기자

첫 번째 기독교 국가의 신앙과 생존을 위한 긴급한 부름

크리스천포스트(CP)는 그렉 살리의 기고글인 ‘아르메니아: 여전히 수호자를 필요로 하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Armenia: The first Christian nation still in need of defenders)를 최근 게재했다.

그렉 살리는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Colorado Christian University)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센테니얼 연구소(Centennial Institute)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2023년 여름, 필자는 세이브 아르메니아 유대-기독교 연합(Save Armenia Judeo-Christian Alliance)의 후원을 받아 아르메니아를 탐방하는 스터디 투어에 참여할 특권을 누렸다.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나라였고, 수 세기에 걸친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과 전통을 굳건히 지켜온 민족이었다.

아르메니아는 지도 위의 또 하나의 나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영적 이정표이자 신앙의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 순간,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자랑은 단 하나로 요약된다. 세계 최초의 공식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다. 서기 301년, 티리다테스 3세(Tiridates III) 왕과 성 그레고리 일루미네이터(St. Gregory the Illuminator)의 증언 아래,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12년 전의 일이었다. 그렇게 아르메니아 고원은 십자가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땅이 되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유산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서쪽의 터키, 남쪽의 이란, 동쪽의 아제르바이잔 등 무슬림 다수 국가들에 둘러싸인 아르메니아는 지정학적 압박의 틀 안에 갇혀 있다. 터키는 수십 년간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폐쇄해 무역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성경의 상징적인 장소인 아라라트 산(Mount

Ararat)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왔다. 동쪽의 아제르바이잔은 지속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3년 아르차흐(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봉쇄해 식량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굶주림 속에 몰아넣어 수만 명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을 떠나도록 강요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르차흐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수백 년 된 교회와 수도원이 서 있는 ‘성지’다.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아르메니아는 단순히 동서 갈등의 희생양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방어진이다. 만약 아르메니아가 무너진다면, 세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위협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특히 앙카라에서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지도를 되살려, 터키에서부터 캅카스까지 이슬람 제국을 재건하고 그 과정에서 아르메니아를 지도에서 지우고 문화를 억압하며 신앙을 침묵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르메니아의 담대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목소리로, 그리고 정치적 행동으로 말이다. 각국 지도자들과 국제 사회에 아르메니아의 국경을 존중하고, 그 주권을 수호하며, 아르메니아인들이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거의 2,000년에 걸쳐 믿음을 지켜온 형제자매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과거 세계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메니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협정을 추진했던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때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으며 결코 포기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시도다. 최승연 기자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생각과 기도’ 논쟁 재점화



이번 미네아폴리스 한 가톨릭 학교의 개학 후 첫 주, 미사 시간 총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제이콥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지금은 ‘생각과 기도의 문제다’라고만 말하지 말라라. 이 아이들은 실제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AP News

미국에서 자연 재해나 총기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생각과 기도(thoughts and prayers)’에 관한 논쟁이, 이번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미네아폴리스 한 가톨릭 학교의 개학 후 첫 주, 미사 시간 총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제이콥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지금은 ‘생각과 기도의 문제다’라고만 말하지 말라라. 이 아이들은 실제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없이 평화롭게 학교나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하며, 부모들도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으로 어넌시에이션 가톨릭 스쿨(Annunciation Catholic School)의 8세와 10세 학생 2명이 사망하고 미사 참석자 18명이 부상당했으며, 프레이 시장의 발언은 기도와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을 촉발했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대부분 민주당원)은 적기법(가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나 총기 구매에 대한 엄격한 신원조사를 강조한다.

가톨릭 신자인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은 프레이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비극에 대한 대응으로 기도라는 개념을 공격하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아무도 기도가 행동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했다.

즉, 이 논쟁은 기도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총기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도는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

주디 한 기자

프레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도는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기도는 행위에 행동을 첨부할 수 있을 때만 적절하다. 우리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년 전, 5년 전, 15년 전에도 똑같은 해결책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을 지지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실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딸 아이메를 잃은 프레드 구텐버그(Fred Guttenberg)는 밴스의 글에 답글을 남겼다.

구텐버그는 X에 “저는 좌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이메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 같은 정치인들이 ‘생각과 기도’라는 개념을 이용해 당신의 무행동과, 제가 14살 딸을 묘지로 만나러 가는 현실을 가린다는 게 충격적.”

이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한 후, 뉴욕 데일리 뉴스는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실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도를 올리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트윗이 이어졌다. 이 신문은 “총기 재앙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는 겹쟁이들이 의미 없는 진부한 말 뒤에 계속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 이어졌다. 뉴욕 중부 대학교의 재키 루이스 목사는 X에 “미국은 기도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총기 숭배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게시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대량 총기 폭력을 정신 건강 위기나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범죄로 규정하면서 헌법상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강조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일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아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요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금요일(안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eunchurch.com

“테일러 스위프트, 하나님 조롱하고 죄를 미화” 커크 카메론 경고

미국의 배우이자 기독교 신앙 옹호자로 활동 중인 커크 카메론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문화적 영향력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카메론은 스위프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죄를 정상화하며, 정욕과 반역을 미화한다”고 지적하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제자훈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카메론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억만장자 팝스타가 도발적인 아트워크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사, 반역을 미화하고 노골적인 죄를 찬양하는 앨범을 내놓으면 그것은 올해 미국 청소년들이 듣게 될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아이가 없음에도 수많은 10대들을 제자로 삼고 있다”며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스위프트가 미식축구 스타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카메론의 지적에 이어, 전직 점성가이자 현재 팟캐스트 진행자인 젠 니짜 역시 스위프트가 “숫자점(numerology)과

같은 뉴에이지적 요소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니짜는 “숫자를 통해 숨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점술이며, 이는 악령적 억압으로 이어진다”며 “스위프트는 이를 귀엽고 무해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위프트가 자신의 ‘행운의 숫자’로 13을 강조해온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 언급이 팬들에게 잠재적 영적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프트는 앞서 2024년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 발매 당시에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 모독적 가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이존 출신 셰인 린치 역시 그녀의 공연을 두고 “숨겨진 사탄주의적 요소가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남침례회 북미선교부 차세대 사역 책임자인 셰인 프루이 목사는 “스위프트의 음악은 단순히 세속적이라기보다 반(反)기독교적”이라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음악을 허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남가주노회 제72회 정기노회, 남가주 중앙교회

세계예수교장로회(GAWPC) 남가주노회(노회장 정요한 목사)는 8월 31일(주일) 오후 3시 30분 남가주노회 제72회 정기노회 및 박종대 목사 원로 목사추대, 박만서 장로 원로 장로 추대와 샘신 담임

목사 취임예배가 남가주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부노회장 박기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서기 오세원 목사 대표기도, 박종대 목사 가족 특별찬양이 있었다

노회장 정요한 목사 인도로 박종대 목사에게 원로목사 추대 기념패와 선물, 박만서 장로에게 원로장로 추대 기념패와 선물, 샘신 목사에게 담임목사 취임 기념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김민선 기자



박종대 목사 원로목사 부부와 박만서 원로장로 부부 기념사진.



샘신 담임목사 부부의 서약하는 모습.



Temecula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女화장실서 男 출입 반대가 정신 건강 문제? 美 교육구 정책 논란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정책을 두고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테메쿨라 밸리 통합교육구는 최근 학생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화장실 및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과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구가 제안한 '선택적 제외'(opt-out) 옵션이 논란이 됐다. 이는 종교적 또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신 건강 또는 종교적 이유로 특정 공간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비판자들은 '정신 건강 배려 요청서'라는 명칭에 대해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차야 라이치(Chaya Raichik)와 교육위원회 후보 소냐 쇼(Sonja Shaw)는 이 정책이 사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을 마치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처럼 낙인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생활을 원하는 소녀들이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며, 종교적 신념을 '정신 건강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정치인들과 교사 노조는 소년·소녀들에게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우리는 계속 진실을 수호하고 이 광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구는 이 정책이 주법을 준수하면서도 학생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교육구는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늘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Back to School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통해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실버드림대학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며 봉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개강예배도 드렸습니다. “가는 세대 잡지 못하고 오는 세대 막지 못한다.”는 말이 생

각났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도 금방 지나가고 새 세대가 오게 됩니다. 가고 오는 세대를 막지 못하는 것은 자연계의 창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큰 바스켓에 물이 차면 기울어져서 물을 붓고 빈 바스켓이 되지만 그 덕분에 방아는 움직이게 됩니다. 계곡을 막아 만든 댐도 물이 많이 차면 흘러 보내고 새 물이 댐을 채우게 합니다. 계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름에 유달리 폭염 때문에 고생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폭염도 자취를 감추고 낙엽 지는 가을이 다가 오게 됩니다.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흘러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인간의 마음은 가고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의료와 정보의 발달

로 신체 건강이 아직도 좋습니다. 이제 물질도 살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갈수록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경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전도서 1:4a)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고 오는 개념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기성세대가 가고 다음세대가 오는 것은 기성세대가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 모두가 잘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축복을 잘 대물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계승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God First!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역전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지위와 언어와 취향과
도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유한하고 같등하고 미
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의 길이 열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면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성령으로 하나 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아부에서 예복회까지, KM과 EM의 온 세대가 'LAFGC'라는 한 교회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강준민 칼럼

연약한 가지 끝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나무에게 배웁니다. 봄이 되면 굽고 무성한 가지보다는 연약한 새순 끝자락에 꽃이 핍니다.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딱딱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한 자리에 꽃이 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가지 끝,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강한 사람, 거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과 운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강한 자를 쓰실 때에도 그를 연약하고 운유하게 빚어 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과 부드러움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가꾸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약함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강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신뢰합니다. 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고후 12:9). 연약함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

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연약함은 포도나무에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요 15:5).

가치 끝에 꽃이 핍니다. 끝자락에 꽃이 핍니다. 가장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종종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자라나신 나사렛은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주로 갈릴리, 즉 이방과 만나는 경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자락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는 끝자락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
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의 끝자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죽음 앞에선 또 한 번의 끝자락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놀라운 일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날을 수 없을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모압 여인 루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온 유대인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셨습니다. 제 인생 여정에도 벼랑 끝이 있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를 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고요 속에 피어나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 경이로움에 경탄하지 못합니다. 꽃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떠납니다. 아름다울 때 머무르고, 아름다움이 다하면 품위 있게 물러나는 꽃, 그 뒷모습까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꽃을 통해 피어날 때와 시들 때,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배웁니다.

꽃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꽃이 떠난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속에는 꽃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열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양보입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문병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꽃이 진 자리 그 상처 위에 맺힌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이자 생명의 이치이다.”(전북일보 칼럼 「꽃 진 자리 그 상처 위에」, 2019.12.9.) 시인

의 안목이 놀랍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서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 위에 맺힌 ‘열매’를 보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를 묵상합니다. 연약한 가지에 돋는 새싹과 그 끝자락에 피는 꽃을 묵상합니다. 꽃이 피고 진 자리에 맺힌 열매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힘들게 맺은 열매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입니다. 풍성한 과실로 섬기는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을 먹는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무를 통해 말 없는 섬김을 배웁니다. 열매 속에는 많은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나눔으로 씨앗을 뿌리고 재생산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나무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눔으로 가장 좋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꽃이 지는 것처럼 떠나야 할 때가 와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맺은 열매를 다른 이가 취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자락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 속에 담긴 씨앗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끝자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꽃이 피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주 소우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신청: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SINCE 1977

캠퍼포나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한과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다국 언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화, 석사, 박사)
- SEVIS I-20 발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안거민 학교
- 홈페이지 : www.pfnas.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복음 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정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 527-0691(0692) Fax: (714) 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교학 박사 (D.Min)과정
연방정장학자직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대표), 515-5885 (임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WILLIAM H. HART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 112 / 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전 12:00
교육부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24404 S Vermont Ave, #201, Harbor City, CA 90710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회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전 12:0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ec@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23-2292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금요일아침기도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11시(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월요일) / 금요일 오후 8:00(영양)
피워킵스 2번째 주 금요일 오후 8:00(영양) / 4번째 주 목요일 오후 8:00(영양)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종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9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우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구봉주 칼럼

참을성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어릴 적 아버지께서 “남자가 참을성이 있어야지”, “남자가 참을성을 길러야지”라는 말씀을 두 아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형은 다치거나, 아플 때, 금세 아프다고 표현하곤 했는데, 잘 참는 편이었던 저는 형을 엄살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란 형과 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도 이 같은 참을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데, 때마침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환웅은 100일 동안 쉼과 마늘만 먹고 동굴 안에서 빛을 보지 않고 지내면, 소원을 이룰 것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두 짐승은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만 성공하여, 여인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웅녀이고, 그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나온 아이가 고조선의 초대 왕, 단군입니다.

이렇듯, 잘 참는 것은 좋은 성품이요 기질입니다. 그런데, 성경 또한 참을성을 귀한 영적 기질과 덕목으로 여겨,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순 우리말인 참을성을 한 자여를 써서, 인내라 표현하는데, 인내가 믿

음생활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고난이 있을 때, 불평 불만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인내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린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시간은 믿음이 성장한 시간이 되고, 그의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셉이 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오랜 시간 가운데, 불평 불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죄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며 지냈고, 그가 인내한 만큼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구약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인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인내는 분노 혹은 좌절과 같은 죄의 유혹, 실족의 위험으로 부터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

지하도록 지켜줍니다. 최근,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극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덕을 세운 교우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화 낼 만하고,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우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버틴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우님의 인내를 받고 흐뭇하게 웃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진짜 신앙되게 하는 인내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으로 알고, “나는 지금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혹시, 인내하지 못해, 시험 들거나, 이후에 있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기억은 없는지?” 한 번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참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신성욱 칼럼

참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매년 적어도 두 차례는 미국을 방문해서 한 두 달 살다가 오는 편이다. 아이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요, 세미나와 집회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유학과 목회하느라 10년간 거주했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몇 달간 아이들과 정을 쌓고 아름다운 미국의 볼거리를 구경하다 보면 국내에 들어오기 싫어질 때가 많다. 누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면 난 단번에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요, 한국은 재미 좋은 지옥’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재미 좋은 천국은 주님 계신 천국 밖에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늘 하곤 한다. 재미 좋은 한국을 드넓은 미국 땅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썬 밸리’(Sun Valley)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은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살고 있다.

이곳은 모든 시설이 초현대화된 곳으로, 호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의 입주가 허락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곳이기도 하다.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다. 아무데서나 불쌍사냥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젊은 커피도 볼 수 없는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곳이다. 갖가지 잡다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이 없을 뿐 아니라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물론 볼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은 자동차 소음도 없고, 노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언제 보아도 마냥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을 뒤엎는 이 의외의 결과에 대해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놀라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 이시형(李時炯) 박사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고 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것 같은 그곳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어째서 타지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높단 말일까?

거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Stress)가 전혀 없었고, 둘째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걱정거리’가 전혀 없었고, 셋째로, ‘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복잡하

고 시끌벅적한 마을로 서서히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걱정거리가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그 자체가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속에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많은 재물을 모은 덕에 경치 좋은 곳에 넓은 집을 사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이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보니 무조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행복은 근심이나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긴장과 변화, 그리고 고민과 갈등과 도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시끄러운 아이들의 소란과 일상의 작은 불편, 가끔씩 맛닥뜨리는 갈등과 고난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인격을 다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행복은 고요한 정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도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권면한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과 부족, 심지어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다. 참 기쁨과 행복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굶주림과 매 맞음과 추위와 감함 속에서도 자유로운 이들을 향

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바울 같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과 행복을 알고 있는 이들이리라.

참 기쁨과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바라기

내가 필요한 건 - 김은주

내게 필요한 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다

많은 재물도 아니요
자랑의 명예도 아니요
정금 같은 믿음이다

촛불이 주의를 밝히고
별빛이 반짝이듯
누군가를 비추고 싶은 소망이다

별빛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사랑이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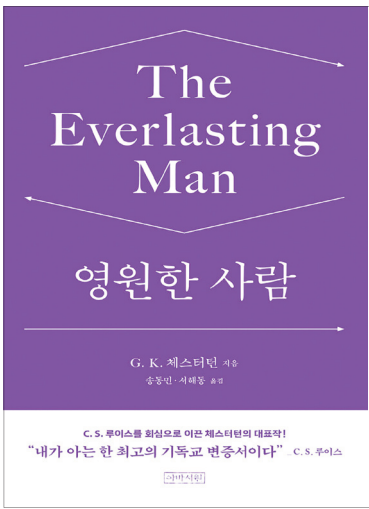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처음 맛보는 체스터턴의 시원한 변증

기독교가 정말 거짓이고 만들어낸 신화라면



영원한 사람

G. K. 체스터턴 |
송동민 · 서해동 역 | 아바서원
484쪽 | 24,000원

많은 비평가들이
체스터턴의 최고 걸작으로
꼽는 이 책은 세계 역사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인간의 독특성과 문명,
비교종교의 문제,
신화와 철학,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함,
복음의 이야기,
교회의 독특성 등에
대해 뛰어난 작가다운
필치로 흥미진진하게
논의한다

정말 힘들게 읽었다. 책이 쉽게 읽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체스터턴의 책이 읽기 힘들었던 이유는 특유의 문체와 위트, 그리고 문화적 서사를 파고들며 역설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정말 탁월하면서도 풍자적이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맛을 느끼면서 읽으려면 상당한 집중과 노력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복있는사람에서 출간된 〈영원한 인간〉에서는 그래서 “체스터턴은 하나의 장르다”라고 평가했는데, 그 말이 옳다. 아직 그 장르에 익숙해지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바서원에서 출간된 같은 저작의 또 다른 번역서, 〈영원한 사람〉을 같이 읽었다. 이쪽에서 덜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저쪽에서 더 얻어내고 싶어서.

체스터턴은 C. S. 루이스, J. R. R. 톨킨 등 많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천재 저널리스트로, 신학·철학·문학·역사 등 다방면에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을 자랑한다.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체스터턴은 기독교를 힘 있게 지지하고 변호하지만, 엄밀히 분류하자면 로마가톨릭 신자다.

체스터턴의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윌리엄 퍼킨스 전집을 같이 읽었는데(도서출판 새언약, 2025), 퍼킨스는 로마가톨릭을 교황주의로 지적하며 성경의 올바른 교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열렬히 비판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체스터턴의 화려한 문체와 기가 막힌 역설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에 반대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느라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읽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영원한 사람〉은 한마디로 변증서다. 저자는 기독교가 왜 참 종교인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인간이라 불리는 피조물에 대하여, ②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에 대하여.

1부에서는 기독교와 크게 상관없이 인간의 역사를 일반적인 상식과 역사를 통하여 분석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터무니없는 신화처럼 여기면서, 진화론이나 여러 철학 및 신화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는 시대정신을 비판한다.

체스터턴은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해답을 주려 하지 않는다. ‘역설’의 대가답게 기독교가 정말 거짓이라면, 만들어낸 신화라면, 그래서 세상 문명과 종교와 철학과 나머지 신들이 말하는 설명을 따르다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더 우스꽝스러워지고 상식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철저하게 입증한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 아래,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서양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역으로 묻는다. 동양 종교가 말하는 영원에 관한 설명과 끝없이 순환되는 운명에 관한 설명이 서양 철학에서도 그대로 발견되지만, 기독교는 서양 문화와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 어떤 종교 창시자나 신화 속 우상들도 이렇게 시대와 종교와 민족과 나라와 사상을 초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면서, 기독교의 탁월함을 드높인다. 기독교가 종교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다루는 참 종교인 것이고, 기독교 교리가 신화 중 하나로 들린다 해도, 진리를 말하는 유일한 신화라고 결론 내린다.

오늘날 기독교 변증학은 주눅이 든 모양새다. 철저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변호를 하려다 그 밖의 역사 및 문화적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그 무지함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항복을 선언하기도 한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읽힌다. 또 그렇게 대다수가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리는 것이다.

하지만 체스터턴은 아주 담대하다. 반 킬은 전제주의 변증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체스터턴의 방식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지만, 체스터턴은 그의 풍부한 상식과 통쾌한 논증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을 기독교 핵심 교리를 애써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압도한다. “너희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반으로 삼는 그것으로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기독교와 같은 것은



▲G. K.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6). ©chesterton.org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바서원과 복있는사람에서 각각 출간된 번역본의 차이는 크지 않다. 복있는사람에서는 옮긴이 전경훈의 짧은 글과 체스터턴의 대략적 연보가 본문 끝에 실려 있다(각주도 굉장히 길고 많다). 아바서원에서 나온 책은 송동민과 서해동 두 사람이 함께 번역한 것으로,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더 편안히 읽힌다(각주도 거의 없다).

복있는사람에서는 체스터턴의 〈이단〉 그리고 〈정통〉을 〈영원한 인간〉과 시리즈로 같이 출간했다. 나머지

두 권의 새로운 장르를 접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고통(?)이 기대되면서, 누구든지 체스터턴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영원한 사람〉을 통해 그가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하는지 보고 배우며, 또 기독교가 어떻게 모든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고 압도하는지 느껴보기를 원한다. 체스터턴은 당신에게 충분히 그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후장 안에 들어 가나니 히브리서 6:19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Hebrews 6:19



龍吟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L. 로스와일러 『성경도설』

구한말 사회 강타한 기독교 서적들과 그 속 삽화 80점

기독교 서적 성경도설, 유아와 여학생 위한 교재에 삽화 수록 번역본에 구약 48점 신약 32점 선교사들 종교 차이 느꼈을 것

민족 복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서양 예술과의 만남 선물 전해 모든 수준의 근대적 변동 자극 한국 사회와 문화 견인차 역할

구한말 한반도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변곡점에 위치해 있었다. 외국 선교사들의 내한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결정적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점은 메리 스크랜턴(Mary F. B. Scranton)의 주도 하에 소개된 『훈아진언』(訓兒眞言)과 L. 로스와일러(Louise C. Rothweiler)의 『성경도설』에서 두드러진다. 두 책은 기독교 서적으로 모두 유아와 여학생을 위한 교재라는 공통점 외에도, 삽화를 싣고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L. 로스와일러(1853-1921)의 『성경도설』(1892)은 『훈아진언』(1891)보다 1년 뒤에 출간됐지만, 처음부터 그림이 실려 있어 『성경도설』 그림이 2년 앞서 있다. 그것은 게일 선교사의 『천로역정』보다도 3년이나 일찍 발간된 것이었다.

로스와일러 선교사는 존스 선교사와 함께 찬송가의 전신인 ‘찬미가’를 발간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화학당에서 교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책을 번역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도설』 저본은 중역본(『聖經圖說』은 푸저우(福州) 美華書局에서 1873

년 발간)이며, 영어 원서 『The Children’s Bible Picture Book(1858)』은 ‘역사적 이야기(Historical Tales)’를 쓴 M. J. 로 알려져 있다.

『성경도설』에 수록된 삽화는 모두 80점이며 구약성경에 48점, 신약성경에 32점, 그리고 나머지는 속지 등에 각각 나누어 실렸다. 애초에 어린이를 주 독자로 여겨 제작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삽화를 수록했다.

책에 그림을 그린 화가는 Steinle, Overbeck, Veit, Schnorr 등으로, 이들 중 널리 알려진 화가는 생전에 많은 성경 그림을 제작하고 유럽의 교회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남긴 줄리어스 쉬노르(Julius Schnorr, 1794-1872)이다.

『성경도설』에 수록된 작품들을 소개하자면, 구약 주요 작품으로는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롯의 아내, 야곱의 꿈, 아론의 금송아지, 발람과 노새, 예리고의 여호수아, 삼손과 사자, 욥과 세 친구 등이다. 신약의 주요 작품으로는 목동에게 나타난 천사, 이집트로 도피, 물이 포도주로 변함, 돌아온 탕자, 가시 면류관, 십자가에 달리심, 사울의 회심, 예루살렘의 바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Christ and the Woman of Samaria)’은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영어 원서에선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예수께서는 여행에 지쳐 우물가에 앉아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실 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왔는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인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앉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께서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M. J., The children’s Bible picture-book, London: M.E. Mission Press, 1858, p.224).”

처음 이 삽화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실물 같은 등장인물을 신기하게 여겼을 것이다. 당시 조선에는 원근법이 나 명암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물 표현에 있어서도 입체감이라든지 빛의 효과같은 것을 알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 복장의 특징과 인체의 해부학적 정확성에 맞추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문서를 통해 서양미술 접촉 기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여인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부녀자들은 봉건적 관습과 권위적 사회구조로 인해 가장 밑바닥에 놓인 계층에 속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그저 아무개의 딸, 부인, 어머니로 불렸을 뿐이다. 양반집 처자라 할지라도 안채의 제한된 공간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성 독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 크게 공감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처음에는 낯설다고 느꼈을 것이나, 책을 읽는 가운데 차츰 빠져 들어갔을 것이다.

인간 존중은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에서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딸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회당장 아버지와 부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예수가 여인에게 손을 댄다는 자체도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부정한 병을 앓던 여인을 살리신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

했을 것이다. 당시 조선 풍속으로 남성이, 혹은 그가 의원(醫員)이라도 여성을 만진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었고, 더욱이 가망이 없는 환자라면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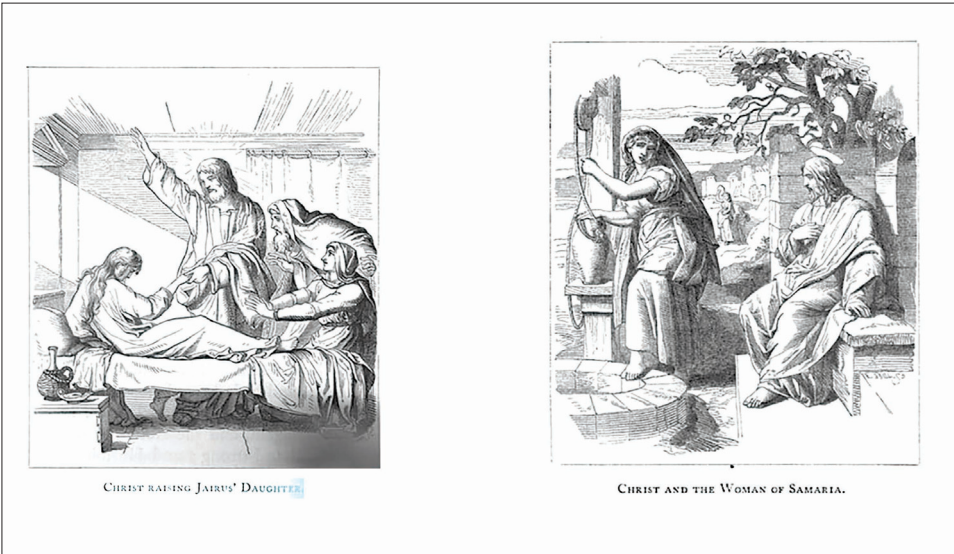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과 선교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선교사들이 믿는 종교가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성경과 기독교 서적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서양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서양화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교회당이 도쿄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귀국한 1915년으로 평가되지만,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서양 그림을 접한 것은 그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 서막은 1890년대에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도설』과 『훈아진언』 등이 소개되면서부터다.

그러므로 완고한 쇄국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근대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것은 이 땅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입국한 시기, 곧 기독교 전래 시기와 함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어려웠던 시기, 한국 개신교는 사회의 모든 차원과 수준에서 근대적 변동을 자극한 사회의 원동력으로 이처럼 한국 사회와 문화를 견인해 갔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성경도설』 영어판(1858)에 실린 삽화. 왼쪽부터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순교 신앙으로 악의 파도 막아설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 열려

거룩한강과제 제7차 국토순례 선
포식 및 출정식이 1일 서울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순례는 '맑은 분의 핏값으로 지켜진
한국교회! 이제는 우리가 지켜낼 차
레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
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소위 '성혁명' 등에 반대하기 위한 '거룩한 방과제'를 세운 국도순례는 올해는 '한국 교회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서울 양화진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의왕, 화성, 평택을 거쳐 천안 서북구, 세종, 부여, 서천, 군산, 김제, 고창, 영광, 함평, 무안, 신안에 이르는 565km의 여정이다.

순례단은 이들 지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묘원, 제암교회, 매봉교회, 공주중학동구선교사가옥, 아펜젤러기념선교교회, 군산구암교회, 만경교회, 대창교회, 금산교회, 두암교회, 덕암교회, 아월교회, 염산교회,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을 돌아본다. 아울러 각 지역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반대 지역선포식과 순교지 특별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본격 선포식에 앞서 우선 예배를 드렸다. 노곤채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서기총 공동회장)의 기도,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의 설교, 장동우 목사(서기총 실무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심하보 목사는 설교에서 “과거 우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룩한 방
파제가 되었기에 복음이 지켜졌고 오
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
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금 이
시대에든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파도, 성평
등이라는 거짓 평등의 파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센 물결들"
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이에 하나님은 다시 묻고 계신다. ‘누가 이 땅의 거룩한 방과제가 되어 성 무너진 데를 막아낼 것인가’라고 묻고 계신다”며 “하나님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와 가정과 다음세대가 무너진다. 방과제는 둘 하나로 세워지지 않

는다. 수많은 돌들이 모여 서로 하나가 될 때 파도를 막아낼 수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석문 목사(서기총 인권위원장)가 사회를 본 2부 선포식에선 먼저 심하보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심 목사는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환영한다"고 짧게 인사했다. 이어 안희환 목사(서기총 실무회장)가 축사했다. 안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그 제정을 막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목사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
리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주

님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거룩한 방과제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국토순례를 한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전했다.

최상윤 목사(서기총 공동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 목사는 “운동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공격과 수비다. 공격이나 수비, 어느 한쪽만 하면 진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수비를 먼저 해야 한다. 선수비 후공격인 것”이라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마귀의 거센 파도를 잘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라고 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서기총 공동회장)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언했다. 주 목사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에 와서 느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이곳에 와서 묵숨

을 던진 선교사들의 마음"이라며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그 뜻을 새길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 목사는 "누군가는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한 악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걱정만 해선 안 된다. 내가 먼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 단장인 홍호수 목사가 소감을 전했다. 홍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세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전국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꼭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일 걸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룩한방파제는 지난 2015년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교단, 시민단체가 연합해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단체다. 이후 전국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5월 제1차 순례를 시작했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572km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이후 2차는 목포를 시작으로 임진각까지 이어진 약 596km, 3차는 경주에서 통일전망까지 402km, 4차는 진도에서 거제까지 517km, 5차는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설악산까지 432km, 6차는 제주도를 도는 234km의 코스를 탔다. 김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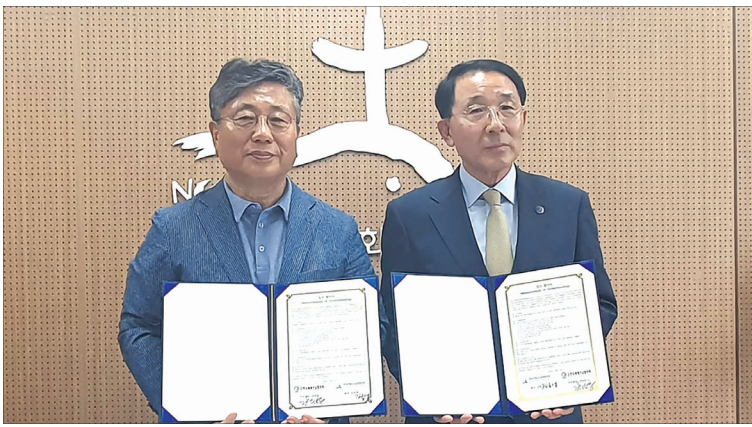
KWMA · NCKK, 선교적 협력 위한 MOU 체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 이하 KWMA)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중생 목사, 이하 NCCK)는 1일 오후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선교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

며,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양 기관이 추구하는 신학적 전통과 정신, 비전과 사명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 사업 및 공동 연구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한반도 평화·통일 및 교회 협력 ▲한국교회 선교 안전과 위기 관리 ▲한



KWMA 강대흥 사무총장(왼쪽)과 NCCK 김종생 총무가 MOU 체결 후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 선교 청년 리더십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선교지
현안 대응 ▲기타 상호 협의 사항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그동

안 이주민, 기후변화 등 많은 선교적 이슈들을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먼저 다뤘고, 이후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를 수용해 왔다”며 “한국교회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

영이 하다 돼 세계 선교를 섬겨야 하는데, 오늘 협약이 그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적 인식이 전환되고, 한국교회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NCCK 김중생 총무는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자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라며 “NCCK는 약자와 연대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으며, 교회 일치와 연대의 길을 걸어 왔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아 변화돼야 할 지점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WMA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이번 MOU를 통해 손을 잡고 한국교회에 선교적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CUCKOO www.Cuckoo 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쿠 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주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생님, 저는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를 구독한 지 일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을 혼자서만 보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제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살면서 매달은 도지스틱 커피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일하며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덕분에 애들 모두 이제는 결혼을 해서 성실히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몸 아픈데 한 곳 없고, 이제는 은퇴를 6개월 앞둔 나이가 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전도사역을 공부하며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 해로 64세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저축도 못했고,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나마 은퇴를 한다고 하니가 회사에 부었던 401k가 조금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네 월급에서 얼마를 넣었는지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혜택 받아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 401k에 돈이 22만 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돈이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기대도 부풀지만 걱정도 됩니다. 전도사역을 계획하고 싶은 저에게 이 22만불을 재정상담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22만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을 안 이후로 자꾸 이 돈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더라구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제와서 돈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들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제 소설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22만불은 큰 돈인데 이 갈등되는 두 가지 마음에 문선영씨에게 연락드려 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

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멸하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지요. 선

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갈등하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더 나아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마음 귀하게 여기고 재정전문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써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지요.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헌신하며 복종,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질문 해 보십시오. 401k에 22만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그 돈에 헌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401k가 생긴 이후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 대가를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401k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플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손님을 돈을 적어 없애줍니다. 어떻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청지가 관점에서 손님들의 재정을 도와드리고, 재정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누가 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여 친구를 얻게 되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늘의 보물로 바꾸는지,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알리게 되는지 그 역할을 칭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민도 전서 4장 2절에도 청지기를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재산을 이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10절). “만일 누가 말하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것이 물질적인 은사이긴 하나

님께서 주신 것임으로 우리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겠지요. 선생님이 몸이 아프시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재정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 같은 재정전문가를 찾아가

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먹이는 오병이여의 “기적”이 아닌 “실천”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401k도 역시 저 같은 재정전문가를 만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서 어떻게 사용, 실천할 지, 주님을 기쁘게 할 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였습니다.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 신뢰 /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영양보충 / 은퇴연금 / 리빙비네리 / 401K 복원 / 학자금 / 절세플랜 / 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인이 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미국인들 앞에서 내 돈 쓰고, 물리고, 불리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르치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냅니다. #머니토크 #재정상담, 돈 이야기 #재정전문가 #머니토크는 재정 #문선영 실세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리빙비네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영양의 재정전문가 리빙비네리문선영의 머니토크(리빙비네리 AM1650)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4시

Finance & Marketing
WISI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Finance & Marketing
WISI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IX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IXΘΥΣ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Loving Worship
Praise Team

Tickets

\$10 | 213.357.1565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 | | |
|---|---|--|
|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 Friday [금] 10.10.2025 — 7:30PM |
|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